

문제해결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문제해결능력,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엄화윤¹ · 이해정² · 임연정³

사직고등학교 보건교사¹,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교수², 연구조교³

Effects of a Problem-Solving Program on Problem-Solving Ability, Self-Esteem, and Depression for Middle School Girls

Um, Hwa-Yoon¹ · Lee, Haejung² · Lim, Yeonjung³

¹Health Educator, Sajik High School, ²Professor, ³Research Assistant,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effects of a problem-solving program on problem-solving ability, self-esteem, and depression for middle school girls with depression. **Methods:** This quasi-experimental study was designed with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middle school girls (N=82; experimental group=32, control group=50) whose CES-D score was higher than 24. The problem solving program consisted of 10 sessions (90 min/session) was composed of introduction, problem orientation, problem solving skills, case application, and ending. The outcomes were measured by the Social Problem-Solving Inventory-Revised (SPSI-R), Rosenberg Self-Esteem (RSE), an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Results:**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problem solving ability ($t=3.10$, $p=.003$) and lower depression levels ($t=-2.60$, $p=.011$) than the control group after completing the program. The levels of self-esteem of the experimental group were improved after the program but the changes in self-esteem were not reached to the significant levels when compared with those of control group ($t=1.64$, $p=.104$). **Conclusion:** Based on this study, problem-solving program is very effective to middle school girls with depression. Therefore, providing problem-solving program as an intervention to promote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with depression should be considered.

Key Words: Problem solving, Self concept, Depression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08년 한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만 12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 중 여자 청소년의 46.6%, 남자 청소년의 36.5%가 '지난 1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에 지장

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P], 2008) 상당수의 청소년, 특히 많은 수의 여자 청소년이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우울은 학습장애, 자살, 약물남용, 비행 및 행동장애 등 2차적 문제들을 유발하기도 하며 청소년 자살생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Kim, 2008; Lee, Kweon, & Kim, 2007).

주요어: 문제해결, 자아존중감, 우울

Address reprint requests to: Lee, Haejung, Yangsan Campus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3-3 Beomeo-ri, Mulgeum-eup, Yangsan 626-770, Korea. Tel: 82-51-510-8344, Fax: 82-51-510-8308, E-mail: haejung@pusan.ac.kr

투고일 2010년 5월 18일 / 수정일 1차: 2010년 7월 26일, 2차: 2010년 9월 15일 / 게재확정일 2010년 9월 15일

10세에서 19세 사이 여자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며(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2008) 자살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 '여성'과 '우울' (Cho et al., 2002)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여자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우울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다.

문제해결능력과 자아존중감은 정신건강에 중요한 요소로, 비효과적이고 비적응적인 문제대처행동과 낮은 자아존중감은 정신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D'Zurilla & Nezu, 2007). 특히 청소년들은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해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거나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Huh, 1999). Kim (2006)의 연구에 따르면 문제해결능력과 우울은 부적상관관계에 있어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 생활사건 발생 시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은 반면 문제해결능력이 낮은 사람은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된 우울은 또한 문제해결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러한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형성의 결정적 시기이자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로 청소년들은 높은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된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우울을 포함한 청소년기 정신건강에 중요한 보호요인(Kim, K. J., 2009)으로 문제해결능력과 정적상관을 보이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대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대학생보다 문제해결능력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1999).

문제해결 프로그램은 건설적인 문제해결태도와 문제해결기술을 배워 문제를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으로 정신건강 분야에서 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으로 적용되며 문제해결능력 증진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인 접근법이다(D'Zurilla & Nezu, 2007). 문제해결 프로그램 실시 후 일반 성인, 일반 청소년, 비행 청소년의 문제해결태도 및 양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었고 문제해결 수행능력이 향상되었으며(Kwon, 2005; Lee, 2004, 2006), 비행 청소년, 우울과 자살 잠재성을 가진 청소년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Eskin, Ertekin, & Demir, 2008; Lee, 2006). 우울증 환자에게서도 우울정도가 크게 감소하였고 그 효과가 6개월간 지속되었다(Eskin et al., 2008; Nezu, 1986; Nezu & Perri, 1989).

국외에서 문제해결 프로그램은 국외에서는 다양한 대상자에게 적용되어 긍정적 효과가 입증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되었으며 특히 학교현장에서 우울 성향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한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문제해결 프로그램은 단지 현재 우울 증상만을 완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능력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우울을 포함한 정신건강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므로(D'Zurilla & Nezu, 2007) 우울 성향 청소년들에게 더욱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울 경험이 많아지는 시기인 2, 3학년 여자 중학생(Son & Kim, 2008)을 대상으로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문제해결능력,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문제해결 프로그램이 우울 성향을 가진 여중생의 문제해결능력, 자아존중감,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우울 성향 여중생들의 정신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문제해결 프로그램이 우울 성향 여중생의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문제해결 프로그램이 우울 성향 여중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문제해결 프로그램이 우울 성향 여중생의 우울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우울 성향이 있는 여중생을 대상으로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문제해결능력,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대조군 전후 설계의 유사실험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P시내 여자중학교 2, 3학년 학생 402명 중 CES-D 점수가 24점 이상이면서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이다. CES-D가 24점 이상인 학생은 전체 402명 중 142명(35.3%)이었고, 학년 간 우울정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아 학교에서 실시 중이었던 예술치료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 중 무선표집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각각 배정하였다. 선행연구(Eskin et al., 2008; Nezu, 1986; Nezu & Perri, 1989)에서 보고된 효과크기=.70을 기준으로, 검정력=.80,

유의수준=.05, 양측검정으로 하였을 때 적정 표본수는 33명이었고 탈락률 40%를 고려하였을 때 총 46명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되어 실험군과 대조군을 각각 50명씩 선정하였다. 배정된 실험군(n=50)은 프로그램 진행 중 학업관계 이유(n=10), 집단 내 개인문제 공개에 대한 불편감(n=3), 전학(n=1), 다른 일과 중복(n=3), 잦은 결석(n=1) 등으로 인하여 18명이 중도 탈락하여 총 8회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32명이 최종 실험군에 포함되었다.

3. 연구도구

1) 문제해결능력 척도

D'Zurilla, Nezu와 Maydeu-Olivares (2002)의 13세 이상 남녀에게 실시될 수 있는 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Revised (SPSI-R)를 Choi (2002)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긍정적 문제수용태도(Positive problem orientation) 5문항, 부정적 문제수용태도(Negative problem orientation) 10문항, 합리적 문제해결방식(Rational problem-solving) 20문항, 충동적/부주의적 방식(Impulsive careless style) 10문항, 회피적 방식(Avoidance style) 7문항으로 총 52문항으로 구성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완전히 그렇다' 4점까지의 5점 척도로 되어있다. 문제해결능력을 나타내는 전체지수는 '긍정적 문제수용태도의 합/5+ (40-부정적 문제수용태도의 합)/10+합리적 문제해결방식의 합/20+ (40-충동적/부주의적 방식의 합)/10+ (28-회피적 방식의 합)/7'로 계산하여 얻어진 점수로, 총점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2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 전체 Cronbach's α = .91이었고 하부개념별 Cronbach's α 는 긍정적 문제수용태도 .79, 부정적 문제수용태도 .91, 합리적 문제해결방식 .93, 충동적/부주의적 방식 .76, 회피적 방식 .80이었다.

2) 자아존중감 척도

Rosenberg (1965)가 개발한 Rosenberg Self-esteem (RSE) 도구를 Joen (1974)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4점 척도로 되어있다. 총점 범위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까지로, 부정적 문항은 역산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86이었다.

3) 우울척도

우울정도는 Radloff (1977)의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Lee, Kim, Kim, Kim과 Seo (2003)의 연구에서 번안 사용한 것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20개의 문항으로 '드물게' 0점에서부터 '거의 대부분' 3점으로 나뉘지는 4점 척도이며 총점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6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을 것을 의미한다. Shin 등(1991)이 한국인에 적합한 CES-D 절단점으로 제시한 24점을 근거로 CES-D 총점이 24점 이상인 경우를 우울 성향이 있는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91이었다.

4. 문제해결 프로그램

1) 내용구성

문제해결 프로그램은 Nezu, Nezu와 Perri (1989)의 '우울증을 위한 문제해결요법(problem solving therapy for depression)'에 제시되어 있는 '임상적 가이드라인(clinical guideline)'과 D'Zurilla와 Nezu (2007)의 '문제해결요법(problem solving therapy)'에 제시된 '문제해결 훈련 지침서(problem solving training manual)'를 초안으로 본 연구자가 중학생 수준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을 수정, 변형하여 구성하였다(Table 1). 선행연구(Eskin et al., 2008; Nezu, 1986; Nezu & Perri, 1989)와 '우울증을 위한 문제해결요법 - 임상적 가이드라인' (Nezu et al., 1989)을 근거로 하여 프로그램은 한 회기 당 90분, 총 10회로 구성하였으며, 연구 프로그램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직접 실시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 2인에게 자문을 받아 수정, 보완하였다. Nezu 등(1989)은 소집단 적정인원으로 8~10명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도 한 그룹 별 10명으로 구성하여 5그룹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프로그램은 크게 문제수용단계와 문제해결기술단계, 사례적용단계로 나누었으며 문제수용단계에서는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내용(2~3회기)을 포함하였다. 문제해결기술단계에서는 '친구문제 사례'를 통한 문제정의 및 공식화, '혼종이와 외모 콤플렉스'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적용하는 해결책 생성, 최선의 해결책 선정, 해결책 실행 및 확인과정을 포함하는 훈련과정(4~6회기)으로 구성하였다. 7~10회기는 모든 회기에 포함된 내용을 여러 사례에 반복 적용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구성하였고, 사례의 예는 예비연구 시 개방형 질문에서 얻은 내용을

Table 1. Problem Solving Program

Variables	Session	Phases	Contents of sessions
Introduction	1	Introdu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riting 'promise to my self' • Self-introduction and making own nickname • Explanation about problem solving program
Problem-orientation	2	Problem-orientation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ink of negative emotion as a cue for problem recognition • Accept problem by positive attitude
	3	Problem-orientation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nd weakness, strength of my own problem solving method • Visualization • Accept problem by positive attitude
Problem-solving skill	4	Defining and formulating proble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rrect cognitive distortions • Collect facts the factors that make the situation a problem • Set realistic goals
	5	Generating alternative solu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planation about brainstorming: principle of quantity, deferment-of-judgement, and variety • Apply brainstorming with white paper • Apply brainstorming about perceived problems related to body appearance
	6	Selecting optimal solution and checking for the effective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ok for the best solution through predicting consequences: possibility/obstacles/personal-social/short-term, long-term effects • Plan specific strategy • Predict consequences if problem is not resolved and consequences of chosen strategies (facilitating motivation for problem solving) • Monitor the consequences, determining the match between anticipated effects and actual effects, and engaging in self-reinforcement
Case application	7	Case practice (potential problems with school wor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ply problem solving skills to exemplified situation (about study) • Explain prompt problem solving
	8	Case practice (potential problems with fin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ply problem solving skills to exemplified situation (about finance) • Explain emotion-focused solution • Apply the ABC method of constructive thinking
	9	Case practice (potential problems with par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ply problem solving skills to exemplified situation (about parents) • Exercising of deep breathing technique
Ending	10	Case practice (friends) & wrap-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ply problem solving skills to exemplified situation (about friends) • Review problem-solving skills and encouraging use of problem-solving skills • Share the feeling about the program ends • Distributing handouts (summary)

기초로 크게 학업문제, 친구문제, 경제적 문제, 부모관계문제, 외모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2) 진행자 준비

프로그램 진행은 본 연구의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2008년 11월에서 2009년 6월까지 문제해결 프로그램 적용 관련 전문서적과 선행연구자료를 연구, 분석하였으며,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자주 실시하는 전문가와의 접촉을 통해

진행을 준비하였다.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주요 문제 상황에 대한 상담경험을 익혀왔으며 전문 상담가 및 전문상담교사와의 정보교류 및 토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 문제 상황에서의 접근법 및 해결법에 대해 준비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소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므로 집단 내 역동관계를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2009년 2월에 30시간의 학교집단 상담 전문가 실습과정을 이수하였다. 문제해결 프로그램 관

련 전문가 2인의 자문을 통해 문제해결 프로그램의 진행 시의 주의점, 각 회차에서의 핵심내용, 진행 시 프로토콜 점검 등 개선점을 확인하여 연구자의 프로그램 진행능력을 향상토록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의 타당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문제해결 프로그램 진행과정을 프로토콜로 구체화시키고 실시 전 미리 프로그램 진행을 녹음하여 반복 청취함으로써 개선점을 발견하여 수정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5. 자료수집

P병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연구실시승인(2009086)을 받은 후 SRSI-R, RSE, CES-D,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설문지를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었던 여자중학교 2, 3학년에게 배부하여 CES-D \geq 24이고 예술치료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군과 대조군 각 50명씩 무선배정하였다. 연구참여에 동의한 실험군에게 2009년 7월 1일부터 8월 30까지 10회기의 문제해결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실험확산을 막기 위해 연구참여 동의서 작성 시 연구대상자에게 완전히 연구가 끝나는 시점까지 연구참여 사실 및 내용에 대해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않을 것을 동의받았고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대조군은 통상적인 관리방법으로, 상담교사에게 우울학생 명단을 제공하여 필요에 따라 개별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후 검사는 실험군 및 대조군만 따로 모여 실시할 경우 대상자들의 의도성 개입소지가 높아 2, 3학년 전수 대상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하였다. 사후 조사 결과 우울(CES-D)이 24점 이상인 학생에 대해서는 지속적 개별상담, 지역사회기관 의뢰, 문제해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관리하였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고 동질성 검정은 χ^2 test로 하였다.
- 문제해결능력, 자아존중감, 우울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고, 집단 간 사전 검사의 동질성 검정은 t-test로 검정하였다.
- 문제해결 프로그램이 실험군과 대조군의 문제해결능

력, 자아존중감, 우울에 미치는 효과검정은 사전, 사후 차이값에 대한 그룹 간 차이를 independent t-test로 검정하였고 자아존중감의 집단 내 차이는 paired t-test로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정

본인이 생각하는 가족소득 수준은 '상'이 1.2%로 연구대상자가 인지하는 가정의 경제소득 수준이 대체로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민이 있을 경우 의논할 가족을 묻는 다중응답이 가능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의 44.3%가 '없다'고 대답하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어머니'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 및 보호자 관계에 대한 만족정도는 각각 5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본인이 생각하는 종교적 믿음 정도는 '믿음이 깊다'고 대답한 경우가 13.4%, 종교 활동(기도모임, 종교서적읽기, 종교친목활동 등) 정도 역시 '안 하는 학생'이 70.7%로 높게 나타나 종교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생각하는 학교성적의 경우 '상'이 3.7%로 상위권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실제 최근의 학교시험결과 1~9등에 속하는 학생은 28.0%로 나타나 자신의 성적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인지하는 친한 친구의 수는 '3~5명'이 가장 많았고 78.0%가 괴롭거나 고민이 있을 때 의논할 친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외모에 만족하는 학생은 13.4%로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및 우울,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높은 특성들의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차이는 동질성 검정 불가한 다중응답 영역인 '가족 중 고민 시 의논할 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2. 연구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 자아존중감, 우울 정도 및 동질성 검정

총 문제해결능력의 범위는 0~20점이며 연구대상자의 총 문제해결능력은 9.9 ± 2.13 점으로 중간정도의 문제해결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에서는 상대적으로 문제수용태도에 있어 부정적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범위는 10~40점으로 본 대상자의 자아존중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82)	Exp. (n=32)	Cont. (n=50)	χ^2	p
		n (%)	n (%)	n (%)		
Grade in the middle schools	2	39 (47.6)	18 (56.3)	21 (42.0)	1.58	.208
	3	43 (52.4)	14 (43.8)	29 (58.0)		
Perceived economic status	High	1 (1.2)	1 (3.1)	0 (0.0)	2.62	.269
	Moderate	60 (73.2)	21 (65.6)	39 (78.0)		
	Low	21 (25.6)	10 (31.3)	11 (22.0)		
Counsellor among family members [†]	Mother	26 (31.7)	6 (18.8)	20 (40.0)		
	Father	8 (9.8)	0 (0.0)	8 (16.0)		
	Siblings	16 (19.5)	3 (9.4)	13 (26.0)		
	Others	3 (3.7)	0 (0.0)	3 (6.0)		
	Nobody	43 (52.4)	23 (71.9)	20 (40.0)		
Satisfaction at relationship with siblings	Very satisfied	13 (15.9)	7 (21.9)	6 (12.0)	7.40	.192
	Satisfied	28 (34.1)	7 (21.9)	21 (42.0)		
	So-so	27 (32.9)	11 (34.4)	16 (32.0)		
	Less satisfied	5 (6.1)	1 (3.1)	4 (8.0)		
	Unsatisfied	4 (4.9)	3 (9.4)	1 (2.0)		
	Nobody	5 (6.1)	3 (9.4)	2 (4.0)		
Satisfaction at relationship with guardian	Very satisfied	16 (19.5)	6 (18.8)	10 (20.0)	2.32	.508
	Satisfied	33 (40.2)	10 (31.3)	23 (46.0)		
	So-so	25 (30.5)	12 (37.5)	13 (26.0)		
	Less satisfied	8 (9.8)	4 (12.5)	4 (8.0)		
	Unsatisfied	0 (0.0)	0 (0.0)	0 (0.0)		
Religious belief	Very much	2 (2.4)	2 (6.3)	0 (0.0)	8.81	.066
	Quite a lot	9 (11.0)	3 (9.4)	6 (12.0)		
	Not very much	23 (28.0)	10 (31.3)	13 (26.0)		
	None	13 (15.9)	8 (25.0)	5 (10.0)		
	No religion	35 (42.7)	9 (28.1)	26 (52.0)		
Religious activity	2~3/week	6 (7.3)	3 (9.4)	3 (6.0)	6.62	.157
	1/week	8 (9.8)	6 (18.8)	2 (4.0)		
	1/month	4 (4.9)	2 (6.3)	2 (4.0)		
	Others	6 (7.3)	1 (3.1)	5 (10.0)		
	None	58 (70.7)	20 (62.5)	38 (76.0)		
Perceived school achievement	High	3 (3.7)	0 (0.0)	3 (6.0)	2.32	.313
	Moderate	45 (54.9)	17 (53.1)	28 (56.0)		
	Low	34 (41.5)	15 (46.9)	19 (38.0)		
Recent school record (in a class)	1~9	23 (28.0)	10 (31.3)	13 (26.0)	3.47	.482
	10~19	23 (28.0)	8 (25.0)	15 (30.0)		
	20~29	24 (29.3)	10 (31.3)	14 (28.0)		
	30~35	12 (14.6)	4 (12.5)	8 (16.0)		
Number of perceived intimate friends	1~2	12 (14.6)	6 (18.8)	6 (12.0)	2.41	.660
	3~5	41 (50.0)	16 (50.0)	25 (50.0)		
	6~8	11 (13.4)	3 (9.4)	8 (16.0)		
	≥9	15 (18.3)	5 (15.6)	10 (20.0)		
	Nobody	3 (3.7)	2 (6.3)	1 (2.0)		
Presence of counsellor among friends	Yes	64 (78.0)	23 (71.9)	41 (82.0)	1.16	.280
	No	18 (22.0)	9 (28.1)	9 (18.0)		
Satisfaction at body image	Very satisfied	2 (2.4)	1 (3.1)	1 (2.0)	0.94	.918
	Satisfied	9 (11.0)	4 (12.5)	5 (10.0)		
	So-so	33 (40.2)	12 (37.5)	21 (42.0)		
	Less satisfied	25 (30.5)	11 (34.4)	14 (28.0)		
	Unsatisfied	13 (15.9)	4 (12.5)	9 (18.0)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 Multiple response.

감은 23.4 ± 3.73 점으로 나타났다. 우울 범위는 0~60점(우울 절단점: 24점)으로 본 대상자의 우울정도는 32.4 ± 6.37 점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변수에 대한 두 집단 간 차이검정 결과 총 문제해결능력($t=-1.48, p=.141$), 자아존중감($t=-0.16, p=.871$), 우울($t=0.57, p=.570$)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이 유사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문제해결능력 하부요인에서도 충동적/부주의 방식을 제외하고는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충동적/부주의 방식에서는 실험군에서 충동적/부주의 방식의 문제해결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후 차이 값 검정을 실시하여 사전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통제하였다(Table 3).

3. 문제해결 프로그램의 효과

실험군의 평균 문제해결능력은 9.6 ± 1.55 점에서 11.5 ± 2.49 점으로 증가한 반면 대조군의 평균 문제해결능력은 10.2 ± 2.41 점에서 10.8 ± 2.50 점으로 큰 변화가 없어 문제해결 프로그램이 문제해결능력을 유의하게 향상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t=3.10, p=.003$). 문제해결능력 하위요인에서 차이값은 긍정적 문제수용태도($t=2.18, p=.032$)와 부정적 문제수용태도($t=-2.03, p=.04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합리적 문제해결기술, 충동적/부주의 문제해결기술, 회피적 문제해결기술은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나 유의한 수준의 향상은 보이지 않았다.

실험군의 평균 자아존중감은 23.3 ± 3.90 점에서 $25.5 \pm$

3.80 점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의 자아존중감은 23.4 ± 3.65 점에서 24.3 ± 4.91 점으로 증가하였으나 사전-사후 자아존중감의 차이값은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1.64, p=.104$). 이에 자아존중감에 대한 집단 내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실험군 내에서 $t=-3.62, p=.001$ 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대조군 내에서 $t=-2.77, p=.082$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험군에서 프로그램 적용 후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우울에 대한 효과를 검정한 결과, 실험군의 평균 우울정도는 32.9 ± 5.40 점에서 24.8 ± 8.89 점으로, 대조군의 우울정도는 32.1 ± 6.96 점에서 28.8 ± 9.75 점으로 두 그룹 모두 우울 성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전후 차이 값 비교에서 두 군이 유의한 차이($t=-2.60, p=.011$)를 보여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더 큰 우울점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우울 성향 여중생에게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정한 연구로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들이 인지하는 소득수준은 대부분 ‘중’, ‘하’에 속하여 연구대상자들이 느끼는 가정경제소득 수준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제소득이 낮을 경우 우울이 높아진다고 나타난 연구결과(Kim, S. K., 2009)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가정형편은 어렵지 않으나 우울로 인한 부정적 시각으로 소득수준을 낮게 인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들은 실제 가정의 소득수준을 알지 못

Table 3. Levels of Problem-Solving Ability, Self-esteem, and Depression at Pretest

Variables	Total (N=82)	Exp. (n=32)	Cont. (n=50)	t	p
	M±SD	M±SD	M±SD		
Problem-solving ability	9.9 ± 2.13	9.6 ± 1.55	10.2 ± 2.41	-1.48	.141
Positive orientation	1.9 ± 0.72	1.8 ± 0.64	1.9 ± 0.77	-0.42	.670
Negative orientation [†]	2.1 ± 0.70	2.2 ± 0.53	2.1 ± 0.80	1.08	.280
Rational problem-solving style	1.5 ± 0.73	1.6 ± 0.64	1.5 ± 0.79	0.59	.551
Impulsive careless style [†]	1.7 ± 0.52	1.8 ± 0.47	1.6 ± 0.54	2.44	.017
Avoidance style [†]	1.6 ± 0.76	1.8 ± 0.77	1.5 ± 0.75	1.39	.166
Self-esteem	23.4 ± 3.73	23.3 ± 3.90	23.4 ± 3.65	-0.16	.871
Depression	32.4 ± 6.37	32.9 ± 5.40	32.1 ± 6.96	0.57	.570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Increasing of the value means decreasing of problem-solving ability.

Table 4. Effects of the Problem Solving Program on Problem-solving Ability, Self-esteem, and Depression

(N=82)

Variables	Exp. (n=32)			Cont. (n=50)			t [†]	p
	Pretest	Posttest	Post-pre	Pretest	Posttest	Post-pre		
	M±SD	M±SD	M±SD	M±SD	M±SD	M±SD		
Problem-solving ability	9.6±1.55	11.5±2.49	1.9±2.14	10.2±2.41	10.8±2.50	0.7±1.59	3.10	.003
PPO	1.8±0.64	2.2±0.60	0.4±0.67	1.9±0.77	1.9±0.77	0.0±0.70	2.18	.032
NPO [§]	2.2±0.53	1.6±0.81	-0.6±0.66	2.1±0.80	1.8±0.86	-0.3±0.66	-2.03	.045
RPS	1.6±0.64	1.8±0.39	0.2±0.64	1.5±0.79	1.5±0.74	0.0±0.56	1.33	.185
ICS [§]	1.8±0.47	1.5±0.57	-0.4±0.56	1.6±0.54	1.3±0.58	-0.2±0.50	-1.33	.184
AS [§]	1.8±0.77	1.4±0.79	-0.4±0.83	1.5±0.75	1.4±0.79	-0.1±0.71	-1.72	.088
Self-esteem [†]	23.3±3.90	25.5±3.80	2.2±3.46	23.4±3.65	24.3±4.91	0.9±3.59	1.64	.104
Depression	32.9±5.40	24.8±8.89	-8.1±7.61	32.1±6.96	28.8±9.75	-3.3±8.43	-2.60	.011

PPO=positive orientation; NPO=negative orientation; RPS=rational problem-solving style; ICS=impulsive careless style; AS=avoidance style;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Post-pre=mean scores at post test-mean scores at pre test.

[†] t-test for changed score between pre-post test; [†] Experimental group paired t-test: t=-3.62, p<.001; Control group paired t-test: t=-2.77, p<.05;[§] Increasing of the value means decreasing of problem-solving ability.

하여 객관적 자료를 얻을 수 없었으나 추후 객관적 자료와의 비교를 통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민이 있을 시 의논할 가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연구대상자의 47.6% (n=39)가 '있다'고 대답하였고, 괴롭거나 고민이 있을 때 의논할 친구가 '있다'고 대답한 대상자는 78.0%로 가족보다는 친구들과 고민을 많이 나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비슷한 고민과 경험을 겪는 친구들은 서로 공감하고 이해해 줄 수 있으므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가족보다는 친구들과 고민을 더 많이 나누는 것으로 보인다.

본인이 인지하는 성적은 대부분의 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중'과 '하'에 해당한다고 반응한 것에 반해 최근에 치른 시험 성적 조사에서 성적은 고무 분산되어 나타나 상대적으로 본인의 성적을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학업에 대한 압박이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 포함된 여중생들의 문제해결능력 점수는 평균 9.9±2.13점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Kim, S. K. (2009)의 연구에서 보고한 문제해결능력점수(12.1±11.54)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중생은 아직 성장 발달기에 있으므로 앞으로 성장과 더불어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고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에 의해 향상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나타낸다.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사전점수는 평균 23.4±3.73점으로 Eskin 등(2008)의 연구에서 보고된 우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점수(실험군 23.8±4.60, 대조군 23.3±4.80)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만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Lee (2003)의 연구에서 보고된 자아존중감 점수(실험군 25.3±3.77, 대조군 28.3±3.65)와 Kim (2003)의 휴대폰 과다 사용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점수(27.3±4.79)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한 사람들의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보고한 Min (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며 비만하거나 휴대폰을 과다 사용하는 청소년보다 우울한 청소년에게서 자아존중감은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2, 3학년 전체 학생들(N=402)을 대상으로 조사한 우울점수 평균은 20.6±11.21점으로 Ha, Oh와 Song (2003)의 연구에서 보고된 2, 3학년 여중생(N=183)의 우울점수(M=14.8)보다 높은 경향이 있었다. 전체 대상자의 35.3%가 24점 이상으로, 이는 2003년도보다 여중생의 우울 성향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여중생의 우울 성향정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프로그램 실시 후 문제해결능력은 실험군에서 유의하

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Lee (2004)의 연구와 복지간병인을 대상으로 한 Kwon (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Lee (2006)의 연구에서도 실험군에서 문제해결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적인 문제해결과정에서 문제해결기술들을 파악한 결과 문제해결능력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 본인이 인지하는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평가만 이루어졌으므로 문제 상황에서의 실제적인 문제해결기술과정의 향상에 대한 정성적 평가가 추가된다면 더 유익한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점수는 실험군, 대조군 집단 내 검정에서는 실험군만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나 실험군, 대조군 전후 차이 값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복지 간병인을 대상으로 한 Kwon (2005)의 연구에서는 문제해결 프로그램 실시 후 자아존중감(RSE)이 유의한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Lee (2006)의 연구에서는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해결 프로그램 실시 후 사전-사후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여러 경험에 의해 자신에 대한 인식과 판단의 변화를 요하므로 단기간 향상되기 어려운 부분이며 Lee (2006)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에 따라 12~16회 차 정도로 비교적 긴 시간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훈련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위한 문제해결요법 - 임상적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하였고, 교내 실험-대조군 간 오염 최소화를 위해 주요 프로그램 단계를 방학기간 내에 실시해야 함에 따라 10회 차로 제한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실험군 내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므로 추후 좀 더 긴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자아존중감에서도 유의한 증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울과 자살 잠재성을 가진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적용시킨 Eskin 등(2008)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증가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단기간 적용할 경우에는 개인별 문제 상황에 대한 개별상담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집단 적용은 집단 내 역동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자아존중감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집단원간 비교로 자기능력을 낮게 평가하여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집단적용 시 집단 내 역동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정신지표’나 ‘대상’에 따라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개별적용 또는 소집단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

며 그 효과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우울과 관련된 사전-사후 비교에서 실험군의 평균 우울 점수는 사전 32.9 ± 5.40 점에서 사후 24.8 ± 8.89 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충동적, 회피적 문제해결방식에서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으로 문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해결가능성을 믿으며 문제해결을 통해 우울을 감소시킨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또래들이 비슷한 문제를 경험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서로에게 지지자 역할을 하며 친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울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짐작된다.

본 연구의 실험군에서 우울점수는 사후 검사에서 -8.1 ± 7.61 점만큼 감소하였으나 성인 우울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Nezu (1986)의 연구에서는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로 측정된 우울점수(점수범위:0~63, 절단점:21점)가 23.9 ± 7.09 점에서 9.8 ± 4.71 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유사 대상자에게 실시한 Nezu와 Perri (1989)의 연구에서도 BDI 우울정도가 26.0 ± 3.96 점에서 6.6 ± 3.29 점으로 크게 감소하여 본 연구결과에서의 우울감소 폭보다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는 측정도구의 민감성 차이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나 프로그램 진행을 보건교사가 실시함에 따라 전문가가 실시하였을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정도가 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보건교사가 직접 적용하였고 프로그램 실시 후 우울과 문제해결능력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 정신건강문제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앞으로 보건교사의 적극적인 중재활용이 필요하며 중재의 전문성을 키운다면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문제해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과정을 마친 직후 1회 검사만을 실시하였으나, Eskin 등(2008), Nezu (1986), Nezu와 Perri (1989)의 연구에서 문제해결 프로그램의 효과는 6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지난 후에도 우울감소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울 청소년에 대한 문제해결 프로그램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결론

본 연구는 문제해결 프로그램이 우울 성향 여중생의 문제해결능력, 자아존중감,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의 유사실험연구로 P광역시에 소재하는 D여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우울 성향이 있는 여중생(CES-D \geq 24) 82명(실험군 32명, 대조군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문제해결 프로그램은 우울 성향 여중생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군 내 자아존중감은 향상되었으나 대조군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문제해결 프로그램은 학교현장에서 우울 성향 여중생의 정신건강을 돕기 위한 중재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좀 더 광범위한 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장기지속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REFERENCES

- Cho, S. J., Jeon, H. J., Kim, J. K., Suh, T. W., Kim, S. U., Hahm, B. J., et al. (2002). Prevalence of suicide behaviors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and risk factors of suicide attempts in Junior and high school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1(6), 1142-1155.
- Choi, Y. S. (2002). A study of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revised (SPSI-R).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2), 413-428.
- D'Zurilla, T. J., Nezu, A. M., & Maydeu-Olivares, A. (2002). *Manual for the social problem-solving inventory-revised*. North Tonawanda, NY: Multi-health Systems.
- D'Zurilla, T. J., & Nezu, A. M. (2007). *Problem solving therapy: A positive approach to clinical intervention* (3rd ed.). New York: Springer Publication.
- Eskin, M., Ertekin, K., & Demir, H. (2008). Efficacy of a problem solving therapy for depression and suicide potential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2(2), 227-245.
- Ha, E. H., Oh, K. J., & Song, D. H. (2003). Psychosocial risk factors for comorbid adolescents with depression and anxiety.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2(2), 127-144.
- Huh, K. (1999). *The effects of impulsivity and social problem solving skills on Juvenile delinqu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Je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The Journal of Yonsei University*, 11, 107-124.
- Kim, B. Y. (2008). *A meta-analysis of the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onnam.
- Kim, H. W. (2006). *(The) Relations among adolescents' depression, problem solving ability, self efficacy, and stressful life ev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J. S. (2003). *Self-esteem, depression, and impulsivity of adolescents with the overuse of mobile phon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 Kim, K. J. (2009).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of high school students: Focusing on risk, vulnerable, and protective fact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gju University, Chongju.
- Kim, S. K. (2009).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control on social problem-solv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8). *The 3rd (2007) online survey statistics for health-behavior of adolescent*. Retrieved January 9, 2009, from http://stat.mw.go.kr/homepage/data/part_data_content.jsp?menu_id=21&curr_page=1&board_bcd=6&ctrl_command=doNothing&seq_no=9976
- Kwon, H. R. (2005). *Effectiveness of a problem-solving skill program for welfare nursing care work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 Lee, C. S., Kweon, Y. R., & Kim, S. J. (2007). The impact of school bullying victim and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9(1), 1-10.
- Lee, H. J., Kim, Y. S., Kim, K. R., Kim, J. S., & Seo, J. M. (2003). Predictors of depression among family caregivers of older adults with dementi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7), 936-944.
- Lee, M. J. (2004). Development and effects of a social problem solving training program for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therapy*, 9(1), 141-161.
- Lee, M. J. (2006). The effects of a social problem-solving training on delinquent and non-delinquent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8(1), 71-91.
- Lee, S. H. (1999).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problem solving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Lee, S. J. (2003). *Effects of a cognitive-behavioral group counseling program on body image, self-esteem, dysfunction attitudes, and depression of obese girl students in a middle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Min, S. Y. (2010). Depression,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in a community popul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9(1), 1-10.
- Nezu, A. M. (1986). Efficacy of a social problem solving therapy approach for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Consulting of Clinical Psychology*, 54, 196-202.

- Nezu, A. M., Nezu, C. M., & Perri, M. G. (1989). *Problem-solving therapy for depression: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guidelines*. CA: Wiley Interscience.
- Nezu, A. M., & Perri, M. G. (1989). Social problem-solving therapy for unipolar depression: An initial dismantling investig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3), 408-413.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in, S. C., Kim, M. K., Yun, K. S., Kim, J. H., Lee, M. S., Moon, S. J., et al. (1991).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CES-D): Its use in Korea standardization and factor structure of CES-D.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0(4), 752-767.
- Son, H. S., & Kim, G. S. (2008). A study on the relations among depression, aggression, and draw-a-story response characteristics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6(5), 405-418.
-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2008). *2008 Adolescent statistics-4.5.2 cause of death for adolescents [data file]*.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Retrieved January, 6, 2009, from http://epic.kdi.re.kr/epic/epic_view.jsp?num=94347&menu=1